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기상정보	00 KBS 뉴스광장	00 코보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이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쾌도난마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4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혜>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50 시사특급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45 문화 책갈피 사물의 재발견(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뉴스와이드	00 한국인의 밥상(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스타 여행에 빠지다(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웰컴 투 돈빌드(재)	00 KBS 뉴스12	4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정오 뉴스 20 한글날 특집 <소통! 한글이 부탁해>	00 SBS 12 뉴스 25 KJB배 KBC고교동문 골프대회(재)
1 00 웰컴 투 돈빌드(재)	00 KBS 걸작선 <학교2013>(재)	30 힐링투어 아생의 발견(재)	25 통일 전망대	25 국회 교섭 단체 대표연설
2 10 토티링평평	00 KBS 뉴스 10 2013 삼성화재 배 월드버드 마스터즈 16강전	00 문화의 달 걸작다큐멘터리 <이무르 제1편>(재)	05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창이 보인다
3 20 직언 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토스 미니미니(재)	00 MBC 경제 뉴스 10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10 생활의 달인(재)
4 30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을 잇는 담쟁이	00 구름빵(재) 30 TV유치원(재)	00 똑? 똑! 키즈스쿨 30 도비도비	00 아이엠 몽니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2013 영화의 바다로 40 2013 프라아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뉴스 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20 특집다큐멘터리 <젊은 디자인>	05 토크쇼(재) <회통>
7 20 이영돈PD의 먹거리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문난이 주의보>
8 3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55 MBC 특별기획 <재정의 달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현정21
9 4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켈투의 베란다쇼	
10 00 시시기획 창 50 다크 공심		00 월화드라마 <굿 닥터>	00 월화특별기획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00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 라인	20 우리동네 예체능	20 PD수첩	20 심장이 뛰다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재)	00 KBS 글로벌 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뉴스 10 생활의 발견(재)	40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15 MBC 뉴스 24 25 MBC 100분 토론	40 노이티라인 ①:10 야구분석

EBS

06:10 세계의 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정신우의 손맛 놓이는 안벽 레시피 - 명란알 비빔밥과 가지 소박이>	15:00 열려라 이비디스	18:30 생방송 보나하니
07:00 미술탐험대	11:20 세계대기여행	15:15 꼬미카시 마이크	19:30 두기 탐험대
07:15 정글북	12:00 EBS 정오 뉴스	15:30 꼬미카북 크랭클린	20:00 EBS 뉴스
07: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5:45 와글와글 유치원(재)	20:20 명의의 건강비결 <치아 건강-우이형 교수 임숙 건강-이종호 교수>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3:05 지식채널e	16:20 캐니멀	20:50 세계대기여행 <캐나다 서부>
08:00 똥똥똥 유치원	13:10 줄거은 수학 EBSMATH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특랑만 2부 특랑만을 사랑하여>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인	13:20 천하무적 한자 900	16:45 숲 속 친구 파파블라(재)	21:50 EBS 디큐리엄 <빛의 물리학>
08:35 방구대장 뽀롱이	13:30 풀꽃 페퍼는 즐거워	17:00 방구대장 뽀롱이(재)	22:45 장수의 비밀
08:50 숲 속 친구 파파블라	13:45 비두와 친구들	17:15 시계마을 타카톡	23:15 세계의 눈 <볼레미의 여정>
09:05 시계마을 타카톡	14:00 잘나 체리우스 박사님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4:05 지식채널e
09:20 부모 <부모 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14:15 탐가탈가 이야기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인	
10:00 한국기행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8:00 미앤아이 로봇	
10:20 명의의 건강비결		18:15 정글북	

EBS플러스1

00:0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01:00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13:00 탐스런 <한국사(3)>
01:40 내신6강 <일반사회>	14:00 인터넷 수능 <독서·문법·회화·작문(A)>
02:30 포스 <회법과 직문>	15:00 " <독서·문법·회화·작문(B)>
03:20 " <독서와 문법>	16:00 " <문학(B)>
04:10 " <수학 I A형>	17:00 " <독해(B)>
05:00 " <수학 I B형>	18:00 7080 파일럿 실전 모의고사 <국어(A형)>
05:50 " <마적분과 통계기분>	19:00 " <영어(A형)>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20:00 " <영어(B형)>
07:20 " <Basic Grammar>	21:00 " <영어(C형)>
08:20 탐스런 <법과 정치>	22:00 " <법과 정치>
09:10 " <동아시아사>	23:00 " <생활과 윤리>
10:00 " <경제>	
10:50 " <한국사(1)(2)>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천소년 상담사 시현대비강사	15:40 " <수학 4-2>
07:30 국제공동제작 세계시리즈(베트남)	16:10 " <수학 5-2>
08:20 수확의 원리 마테미타카	16:40 " <수학 6-2>
08:30 요리비결	17:10 통통가족
09:00 줄거은 수학 EBSMATH	17:20 중학개념 끝장내기 <영어>
09:10 중학 1학년	18:00 " <과학>
09:50 " <국어①②>	18:40 원더풀 싸이언스(3)(4)
10:30 " <수학①(하)>	20:20 EBS문화시리즈 <역사①> <제1편 명동백자>
11:10 " <역사②>	21:20 등업선 <사회>
11:50 중학 2학년	22:00 중3 퍼펙트 체크업 <수학①(상)> <비문학②>
12:30 " <영어②-2>	22:40 중학 3학년 <영어>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23:20 " <비문학③>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24:00 EBS 생활영어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24:30 요리비결(재)
15:10 EBS 초중 대공농담 <수학 3-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8일(음 9월 4일 丁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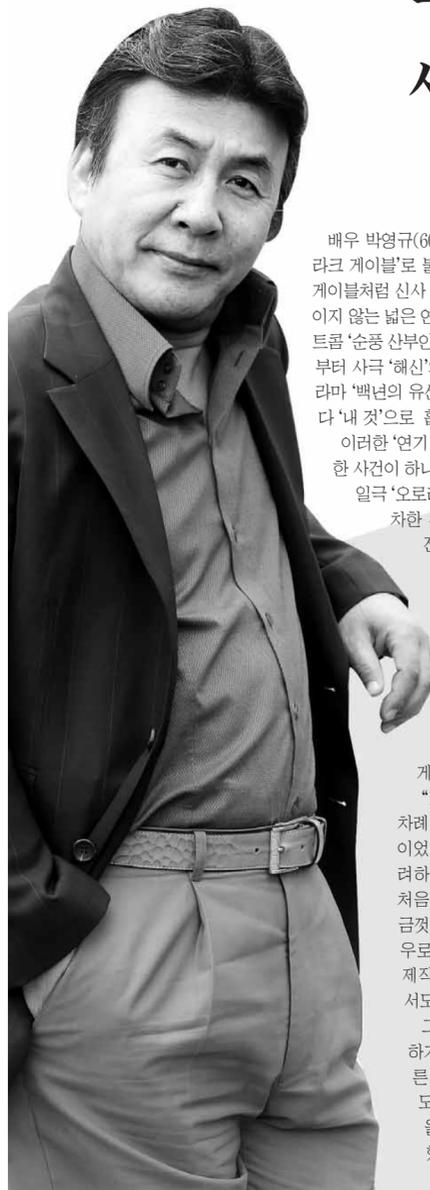
子	36년생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48년생 형식과 외형도 중요하다. 60년생 움직임이 약하지만 실속은 있다. 72년생 총체적 점검과 정비가 절실한 시기이다. 84년생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11, 35
丑	37년생 제 몫을 다 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49년생 좋은 방안이 생기겠다. 61년생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도 괜찮다. 73년생 활로를 개척하게 되리라. 85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 하자. 행운의 숫자 : 55, 22
寅	38년생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50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62년생 공들여 왔던 것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74년생 뜨거운 결합의 기운이 샘솟으니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85, 27
卯	39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해 보는 것도 좋다. 51년생 밝바 큰 원인 분석이 절실하다. 63년생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 75년생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31, 43
辰	40년생 살피는 것보다는 실행이 더 효과적이다. 52년생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후련함이 보인다. 64년생 짐작을 버린다면 오히려 순행할 수 있겠다. 76년생 휘발한다면 상처가 깊어질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2, 62
巳	41년생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자. 53년생 역할을 잘 한다면 원만한 기쁨을 수행할 수 있다. 65년생 혼동 되지 않도록 체계를 잡아서 처리해야 한다. 77년생 소극적이거나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70

午	42년생 잘 추스른다면 자족할 수 있다. 54년생 좀 더 크고 먼 안목으로 바라보아라. 66년생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 해야겠다. 78년생 현상 유지와 창의성 간에 균형과 조화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9, 91
未	43년생 첨예한 관심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55년생 제 반사가 길하니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자. 67년생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단계이다. 79년생 상대를 갖고 소신껏 행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71, 04
申	44년생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56년생 부드러움이 감함을 능히 제어하는 법이다. 68년생 복이 흥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알라. 80년생 믿고 의지했던 바가 불시에 사라지는 모습이니라. 행운의 숫자 : 63, 54
酉	45년생 숙련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57년생 명분이 확실하다면 제기해도 된다. 69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81년생 재물이 새고 있으니 전방위적으로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97, 18
戌	46년생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58년생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 하게 될 것이니라. 70년생 필요 이상의 것은 버거로울 뿐이다. 82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64
亥	47년생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59년생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나으리라. 71년생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83년생 진행한다면 무조건 성사된다. 행운의 숫자 : 17, 7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 환영!” ☎010-9790-8237

“‘오로라공주’ 하차 섭섭... 새로운 기회 찾아 다행”

박영규, KBS 새 사극 '정도전' 이인임 역 캐스팅



배우 박영규(60)는 짧은 시절 '한국의 클라크 게이블'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클라크 게이블처럼 신사 같은 이미지에도 틀어 얽매이지 않는 넓은 연기 보폭을 보였다. 그간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의 코믹한 '미달이 아빠'부터 사극 '해신'의 카리스마 있는 거상, 드라마 '백년의 유산' 속 '꽃 중년'까지 역할마다 '내 것'으로 흡수하는 내공을 보여줬다. 이러한 '연기 9단' 박영규에게 최근 속삭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지난 7월 MBC 일일극 '오로라 공주'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한 것. 손창민, 오대규가 제작진으로부터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주인공 오로라의 큰 오빠로 출연한 박영규도 극 중 미국행을 택하며 브라온관에서 사라졌다. 최근 을지로서에서 인터뷰한 박영규는 당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년 전부터 제의를 받아 수차례 고사한 끝에 결정된 작품이었어요. 그럼에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에 처음엔 섭섭하고 황당했죠. 지금껏 그런 마음으로 연기한 배우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제작진이 출연진과 짝은 계약서도 의미가 없더군요." 그는 "배우는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작품을 거절하니 기회비용도 생긴다"며 "나름의 철학을 갖고 한해 농사를 지으려 했는데 가을걷이가 박살 났

다. 차후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정리했다. 상대를 원망하기 전에 그 작품을 결정한 것도 자신이었다. '내 탓'이라고 여겼고 인생에 약이 됐다고 결론 내리자 '새옹지마'처럼 좋은 일이 찾아왔다. 그는 내년 1월4일 첫 방송될 KBS 1TV 대하사극 '정도전'(가제)에서 정도전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처 9단' 이인임 역에 캐스팅됐다. 사극은 2004년 KBS 2TV '해신' 이후 10년 만이다. '정도전'에는 조재현(정도전 역), 유동근(이성계), 임동진(최영) 등 걸출한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됐다. 박영규는 모처럼 연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으며 '결결' 웃었다. 캐리커가 무척 마음에 들어 연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줄 기회인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필요한 시점에 이런 작품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리가 좋고 정치적인 이인임은 정도전과 대립하며 극 중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 모두 거쳐 갈 정도로 인パクト 있는 역할이에요. 허술한 악역이 아닌 만큼 어깨가 무거워졌죠." 그는 연기와 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신이 축적되던 영화 제작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한국제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게 꿈이에요. 자신이 축적되면 재해 보고 싶은 영화로 해외 시상식 레드 카펫을 밟아보고 싶어요." 시련도 있었다. 지난 2004년 3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것. 그는 당시 경황이 없었는데 10년이 지나 정신이 드니 아들이 더욱 보고 싶다고 했다. /연협뉴스

KBS광주, 특집 '대안교육 15년...' 내일 방영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

미인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의 현실을 짚어보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KBS광주방송총국은 9일 밤 10시부터 5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대안교육 15년, 다시 대안을 묻다'(연출 윤영희 기자)를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산청 간디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내 경쟁과 서열위주 교육의 대안을 찾아나선 미인가 대안학교의 역사를 살펴 보고 기존 교육에 미친 영향을 취재했다. 교육 전문가와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들

모두 대안 교육이 기존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귀족학교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교육부가 최근 "미인가 대안학교의 한 해 교육비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보도자료를 내 놓으면서 이런 인식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실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미인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문을 닫거나 교사와 학부모



모가 그 고통을 떠안는 결과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인당 연간 교육비가 592만원에 이른다.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일반학교 수준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TV 하이라이트

<p>특랑만의 소박한 삶이야기</p>	<p>유전자 검사가 주목받는 이유</p>	<p>아픈 두 아들을 향한 父情</p>
<p>한국기행(EBS·밤 9시30분) = 남해안의 보물 곳간, 특랑만. 전남 장흥군과 보성군, 고흥군에 둘러싸여 있는 특랑만은 청정바다와 차진 갯벌로 인해 계절 생선이 넘쳐나고 바다를 메운 비옥한 땅에서는 곡식이 풍성하다. 소박한 사람들의 넉넉한 이야기가 있는 곳 자연의 인심 넘치는 가을 특랑만으로 함께 가보자. 제2부 '특랑만을 사랑하여'편에서는 특랑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바다와 들이 품어주는 땅은 이들이 항상 꿈꾸었던 터전이었기에 낯설지가 않다. 천관산의 보살님 속에서 아이 넷을 기르는 이준철씨 부부, 바다가 좋아 예순이 넘어서 초보 어부로 첫발을 내디딘 광대남씨 대기업 임원이었던 조영현씨가 그 주인공이다.</p>	<p>현장21(SBS·오후 8시55분) =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채 총장은 지난날 말 퇴임했지만, 사실이나 정치적 음모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줄 모르면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기술 발달에 힘입어 유전자 검사기관도 해마다 늘어나고 검사 비용도 낮아져 2005년만 해도 100만원 정도였던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비용은 최근 30만 원 정도로 낮아졌다. 실제로 유전자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친자확인 소송 건수도 2002년 2,624건에서 2011년 말 5,050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채 전 총장 사건 이후 부패 관심이 높아진 유전자검사를 둘러싼 갖가지 사연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방송한다.</p>	<p>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 = 연년생으로 보람이와 우람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보람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었지만 무서운 병에 걸렸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빠. 하지만 우람이가 태어나면서 형제는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았고, 병원에서는 아이들의 몸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고 했다. 순식간에 기쁨의 눈물은 슬픈 눈물이 되어 흘렀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엄마마저 아빠와 아이들의 곁을 떠나버렸다. 아이들과 오래도록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는 아빠, 아빠와 형제에게 다시 희망이 찾아 올 수 있을까?</p>